

탐방시나리오

제목 : 쌍곡구곡 경관해설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

자연 해설 시나리오

□ 제 목 : 속리산 국립공원 쌍곡지구 이야기

□ 해설 코스 : 절말(쌍곡 휴게소) → 쌍곡폭포 → 다리

□ 주요 내용

1. 인사나누기
2. 국립공원은 어떤 곳인가요?
3. 쌍곡의 이해
4. 돌탑 쌓기 놀기
5. 소나무 이야기
6. 쌍곡의 산
7. 쌍곡의 구곡
8. 생강나무 이야기
9. 나무와 대화하기(나무 끌어 안기)
10. 숲, 나무의 중요성 및 마무리

1. 인사나누기

안녕하세요? 저는 속리산 국립공원 쌍곡지구에서 자연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000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등등 인사나누기

여러분은 쌍곡지구 자연해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자연해설 프로그램은 국립공원을 방문한 여러분에게 수려한 경관의 감상과 자연관찰 ·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자연의 의미와 소중함을 다시 느껴봄으로써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보호하는 이유를 공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쌍곡 계곡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느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은 쌍곡 계곡의 빼어난 곳 9곳과 쌍곡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 풍경과 자연을 저와 같이 둘러보는 것으로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국립공원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속리산 국립공원 쌍곡 지구라는 것은 다 아시죠? 그럼 국립공원이 어떤 곳인 줄 아시는 분은 계신가요? 국립공원이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가 지정한 공원을 뜻합니다. 즉,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와 자연, 문화 경관지를 선정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며, 현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하고 관리하는 곳을 말합니다.

3. 쌍곡의 이해

① 쌍곡의 유래

쌍곡이란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아시는 분계십니까? 쌍곡은 두 개의 내와 골짜기 때문에 생긴 지명으로 제수리골과 방아골의 양 계곡과 내를 말합니다.

② 칠성의 유래

각 지명에 대한 전설이 있듯이 칠성도 재미있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옛날 하늘에 신선들이 많이 살았는데 신선 일곱이 죄를 짓고 옥황상제한테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 쫓겨난 일곱 신선은 돌이 되어 땅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옥황상제가 보니 마음 한구석이 측은하게 여겨져서 흩어져 있던 돌들을 한 곳에 모아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도정(道井)리에 있는 칠송암(七松岩)입니다.. 그 모양이 북두칠성처럼 생겨 여기를 ‘칠성’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4. 돌탑 쌓기 놀이(샤머니즘적인 정성)

여러분 여기는 돌탑을 쌓고 남은 한해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모두 소원 성취를 빌고 가는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소원 성취하시길 빌겠습니다. (소원을 빌고 나서) 어떤 소원을 비셨나요?

5. 소나무 이야기

소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아시죠? 대표적인 나무이기도 하고 중요한 나무이기도해서 여러분과 소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① 2004년 6월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한국 갤럽의 특별 기획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40가지’란 주제로 실시한 조사결과 중 흥미로운 점이 두 가지 눈에 띕니다. 하나는 은행나무(4.4%), 단풍나무(3.6%), 벚나무(3.4%), 느티나무(2.8%)보다 소나무(43.8%)를 좋아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가장 좋아하는 꽃과 새는 오히려 외래종인 장미와 앵무새란 사실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접하고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은 세계화의 거센 파도를 넘어야만 하는 세태를 반영하듯 꽃과 새에 대한 우리들의 취향은 외래종인 장미와 앵무새를 스스럼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나무만은 여전히 이 땅의 토종 소나무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정보혁명의 광풍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에서 농경문화를 대변하던 소나무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소나무는 농경사회를 유지하는 데 없으면 안 될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오

죽하면 우리네 인생을 ‘소나무와 함께 태어나 소나무 속에서 살다가 뒷산 솔밭에 묻힌다.’고 표현하기까지 했겠습니까. 이 말은 금줄에 끼인 솔가지, 소나무로 만든 집과 가구와 농구, 그리고 관재(棺材)로 사용하는 송판을 떠올려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문화의 특성을 ‘소나무 문화’라고 일컫는 이유도 소나무가 간직한 이러한 물질적 유용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만큼 한민족의 문명발달에 숨은 원동력이 된 나무도 없습니다. 소나무를 도외시한 채 궁궐을 비롯한 옛 건축물의 축조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소나무의 공덕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적을 무찌른 거북선과 전함은 물론이고, 쌀과 소금을 실어 날랐던 조운선도 모두 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에 자랑하는 조선백자도 영사라고 불리는 소나무 장작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소금 생산도 이 땅의 솔숲이 감당했습니다. 과거엔 가마솥에 바닷물을 붓고 소나무를 베어내 불을 때는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나무 문화로 대표되는 농경사회는 지난 한 세대 만에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궁궐재와 조선재를 제공해왔던 이 땅의 소나무 숲은 산업화에 따라 농촌인구가 줄어들면서 하루하루 불안정한 상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소나무 숲은 인간들의 적당한 관심과 간섭으로 안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맨땅에 씨앗이 떨어져야 싹이 트고 활엽수 속에서는 맥을 못 추는 소나무의 생태특성상 땔감용으로 숲 바닥의 낙엽들을 긁어내고 활엽수를 제거했던 인간의 관행이 소나무에는 좋은 생육공간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나무 숲에 대한 인간의 관심과 간섭이 사라지자 참나무류를 비롯한 활엽수들이 식생천이의 질서에 따라 소나무의 생육공간을 차츰 잠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 같은 외래 병해충의 창궐은 이 땅의 소나무에 엄청난 재앙이 되고 있다.

한때 우리 산림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소나무 숲이 인간의 간섭이 사라지고, 병충해와 산불, 수종 갱신으로 급감해 오늘날은 겨우 산림면적의 25%만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100년 뒤에는 이 땅에서 소나무가 사라져 가리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눈앞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서 급격하게 사라져가는 소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조상들의 문학과 예술, 전통과 풍습에 녹아 있는 소나무의 상징적 의미가 오늘날도 한국인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조상의 문학과 예술과 상징에 녹아 있는 소나무의 영역은 이 땅의 다른 어떤 나무들보다 더 컸습니다. 소나무는 한시와 노랫말과 산수화 속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생명의 나무였습니다. ‘일월오악도’나 ‘십장생도’ 속의 소나무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민속신앙과 풍수지리 사상, 유불선(儒佛仙)에 녹아든 소나무는 민족 정체성의 한 요소가 되어 오늘날도 우리의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흔적은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장관급 벼슬을 가진 능륜한 정이품 소나무는 최근 2세를 얻기 위해 인공교배와 유전자지문 감식까지 받았고, 토지를 소유한 부자 나무로 국가로부터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석송령 소나무는 올해도 어김없이 재산세를 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이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길 때 목역산에 심었던 그 소나무는 ‘남산 위에 저 소나무’라는 애국가의 한 구절이 되어 오늘도 노래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솔잎을 가르는 장엄한 바람 소리를 태아에게 들려주면서 시기와 증오와 원한을 가라앉히고자 솔밭에 정좌하여 태교를 실천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사철 변치 않는 늘 푸름과 청청한 기상의 강인한 생명력을 본받아 지조·절조·절개와 같은 소나무의 덕목을 머리 속에 심었습니다.

우리 문화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기이하게 여길 이러한 소나무를 우리는 어제도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서 일관된 정서로, 또는 생활 전통의 문화 요소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런 소나무를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소나무는 이름 있는 건물 앞의 조경수로,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의 공원수로, 유서 깊은 도로변의 가로수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시인은 소나무를 예찬하고, 화가는 소나무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내고, 전문가는 소나무에 대한 다양한 연구 내용을 책으로 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함없이 애국가를 통해서 ‘남산 위에 저 소나무’를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6. 쌍곡의 산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저 멀리 쌍곡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보이시나요? 많은 산들이 있으나 저희 쌍곡에서는 정규 탐방로는 군자산, 칠보산, 장성봉 이렇게 3산만이 산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① 군자산

예로부터 칠성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군자산에 올라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산에 나무가 그리 많지 않아 사람들의 모습이나 산의 내부까지도 잘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뭄에 찌든 사람들이 군자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 돼지를 잡아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돼지피를 근처에 뿌렸더니 산신령이 돼지피를 씻어 내려고 비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후, 주변 마을 사람들은 군자산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군자산은 신령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산삼이 많다는 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군자산에는 사흘걸이로 산삼을 썰 만큼 산삼이 많았다고 합니다. 욕심이 없고 당장 살기가 급급한 사람에게는 산삼을 내보여 캐가게 했지만, 훗날 욕심이 생겨 다시 찾는다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듣고 찾아가면 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행코스는 쌍곡구곡의 제2곡인 소금강에서 출발하여 군자산 정상을 지나, 도마골로 내려오는 코스이며, 길이는 6.5km로 6~7시간이 걸립니다. 주변의 산행코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코스이니, 겨울철 산행에서는 아이젠을 착용하셔야겠죠.

② 칠보산

예로부터 불가에서는 금, 은, 산호, 거저(바다조개), 마노(석영), 파리(수정), 진주를 일곱가지 보석으로 치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보석처럼 아름답

다운 일곱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 산이 있는데 바로 칠보산 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칠봉산이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칠보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일곱 봉우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산 능선을 타다 보면 열다섯 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를 오르내리는 재미도 있고 특히, 가을 단풍이 탐방객들로부터 감탄을 이끌어 내고 있는 산입니다.

산행코스는 쌍곡구곡의 제3곡인 떡바위에서 출발하여 칠보산 정상을 지나, 살구나무골을 거쳐서 쌍곡구곡의 제5곡인 쌍곡폭포에서 쌍곡휴게소(절말)로 내려오는 코스며, 길이는 6.9km로 4~5시간이 걸립니다. 칠보산의 정상에 거북이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북바위가 있고, 정상에서 청석재로 내려서는 길에 돼지형상의 돼지 바위가 있습니다. 정상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아들 바위는 돌을 던져 가운데 올리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③ 장성봉

장성봉은 이름에서 풍기는 이미지대로 만리장성이 들어선 듯 장엄한 산세를 갖고 있는 산으로 예전에는 수정을 캐던 수정 광산으로 알려졌던 산입니다. 그래서 능선에 올라서면 석굴들이 보이는데 이 석굴은 수정 광산으로 지금은 폐광입니다. 산행코스는 재수리치에서 막장봉으로 올라 장성봉 정상으로 올랐다가, 다시 막장봉을 거쳐 시묘살이골을 지나 쌍곡휴게소(절말)로 내려오는 코스이며, 길이는 12km로 7시간이 걸립니다.

④ 막장봉

막장봉은 시묘살이계곡이 협곡을 이루고 광산의 갱도처럼 생겼는데 그 끝에 이 봉우리가있다고 붙여졌다고 합니다. 기암들이 줄지어 있는 바위 능선들이 줄을 지어 있어 산행에 재미를 더하는 곳입니다.

7. 쌍곡의 구곡

이곳은 제 7곡에 해당하는 쌍곡폭포입니다. 쌍곡의 구곡은 약 10.5km의 넓은 구간에 분포하고 있어서 한 눈에 9곡을 모두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쌍곡9곡의 경치를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 주희 무이구곡을 따서 화양 구곡이라 지었던 송시열 선생을 따라 쌍곡 또한 구곡이라 명명되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 제1곡은 호룡소로 계곡에서 내려온 물이 이 곳에서 넓은 소를 이루고 있고 옛날 근처 절벽에 호룡불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어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 제2곡은 소금강으로 절벽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데 금강산의 비경에 비견될 정도 아름답다하여 소금강산이라는 뜻으로 소금강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 제3곡은 떡바위로 약 600㎡나 되는 원형에 가까운 넓고 편편한 반석으로 옛날부터 쌍곡마을에서 해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또 이웃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모든 사람들의 가장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을 뽑아 단오날 이 반석에서 여러 동네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평소 그 사람의 훌륭한 행동에 대하여 높이 치하하고 푸짐한 상품과 큰 잔치를 열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덕(德)반석이라고 불러 내려왔다가 현재는 그 모양이 시루떡을 펼쳐 놓은 것 같다고 해서 떡바위라고 부르는데 덕바위가 떡바위로 변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제4곡은 문수암으로 예전 문수보살을 모신 암자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주위에 흩어져 있는 바위들과 돌담 흔적이 그 규모를 짐작해 할 정도입니다.

- 제5곡은 쌍벽으로 10m 높이의 바위벽이 마주보고 장관을 연출한다고 하여 쌍벽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 제6곡은 용소로 용이 승천하였다는 전설이 있는 곳으로 예전에는 수심이 깊었으나 현재는 5~6m 정도입니다.

- 제7곡은 쌍곡폭포로 높이 8m정도로 쌍곡 전체의 계곡이 남성적인데 비해 수줍은 촌색시처럼 여성적인 향취를 간직한 폭포입니다.

- 제8곡은 선녀탕으로 제수리재에서 내려오는 계곡 하단부에 있는데 직경 10m 정도의 소를 이루고 있고 수심도 2m 남짓하여 지금도 선녀들이 달밤에 목욕하러 내려올 것 같은 환상에 빠져 들게 만든다하여 선녀탕이라 합니다.

- 제9곡 장암(마당바위)은 약 40m의 반석으로 마당같이 넓다고 해서 마

당바위라고 합니다.

8. 생강나무 이야기

저의 얘기가 지루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활짝 떠질만한 이야기를 해 볼까합니다. 우리나라 산야에 널리 자생하는 생강나무인데요, 들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생강나무에 대해 아시는 분계신가요?

강원도 정선 아리랑의 한 가락을 들어 보면 "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사시장철 임 그리워서 나는 못 살겠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역시 아우라지 나룻터에서 강 건너 피어 있는 생강나무의 꽃을 보며 열매를 주우며 만났던 님을 그리워하는 사연이 담긴 노래입니다.

그리고 김유정의 《동백꽃》에 나오는 “한창 피어 흐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는 그 노란 동백꽃이 바로 생강나무입니다.

봄에 일찍 꽃이 피므로 겨울이 긴 우리의 정원에 제격인데다 황금색 꽃 외에도 넓은 잎은 녹음이 좋고 노랗게 물드는 단풍은 그 어느 수종도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선, 키가 5m 정도로 가로수로 하면 더 이상 손질이 필요 없어 제격입니다. 초록에서 붉은색 다시 검은색으로 익어가는 수많은 열매 또한 일품입니다. 열매가 달리는 암나무는 처음 붉은색으로 익었다가 나중에 까만색으로 변한다. 수나무는 열매가 달리지 않지만 꽃은 잘 피웁니다.

가지를 꺾으면 향긋한 향이 코를 간질하는데 잎을 손으로 비볐다가 냄새를 맡으면 좋은 향기가 오래도록 가지질 않습니다. 그 향이 생강 냄새와 비슷하다고 하여 생강나무라고 합니다. 아직 산중에는 얼음이 채 녹지 않았는데 황금색 꽃을 피운 나무가 눈에 띄는데 매화보다도 일찍 피서 황매목(黃梅木) 또는 단향매(檀香梅)라 합니다. 또한 생강을 새양 또는 새양이라고도 하니 새양나무라고도 하고 지방에 따라 산동백, 개동백, 동배나무라고 했습니다.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활엽아교목으로 잎과 잔가지에서 방향성 향유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가을에 잔가지를 잘라 말린 것을 한방에서는 황매목(黃梅木)이라 하여 건위, 복통, 해열, 거담제로 씁니다. 피부병에 줄기를 삶아 그 물로 씻으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가을에 열매가 완전히 익으면 딱딱한 겉껍질을 깨고 속에 든 과육으로 기름을 짜서 여인네들의 향기로운 머릿기름이나 화장유로 썼습

니다. 동백이 자라지 않는 내륙에서는 생강나무 기름을 동백기름이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씨앗으로 기름을 짰는데 겨울철에 까맣게 익은 씨앗에는 오래 두어도 잘 마르지 않는 기름이 40% 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은 동백기름이라 해서 옛날 사대부집 귀부인들이나 높은 벼슬아치를 상대하는 이름난 기생들이 사용하는 최고급 머릿기름으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계피나 생강, 고추 같은 향신료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 나무껍질과 잎을 말려 가루로 내어 양념이나 향료로 쓰기도 했으니 여러모로 가난한 민중과 가까웠던 나무입니다.

예부터 생강나무를 도가(道家)나 선가(仙家)에서 귀하게 썼습니다. 신당(神堂)이나 사당에 차를 올릴 때 이 나무의 잔가지를 달인 물을 바치면 신령님이 매우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산 속에서 정신 수련이나 무술 수련을 하던 사람들이 생강나무를 즐겨 썼는데, 생강나무를 달여서 오래 마시면 뼈가 무쇠처럼 튼튼해져서 높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뎠다 떨어지거나 뛰어내려도 여간해서는 뼈를 다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른 봄 차를 따 후의 어린잎은 따 말렸다가 튀각도 만들고 나물로도 했습니다. 한 장씩 잎을 따 찹쌀가루에 튀겨내면 맛과 향, 멋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꽃을 따 말렸다가 주머니에 넣어 방에 걸어두는 민속이 있다고 합니다. 추위 속에 꽃피는 강인함이 사기(邪氣)를 쫓는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꽃이 진 후에 잎이 돌아나는데 싹이 나와 참새 혀바닥만큼 할 때 따서 말렸다가 차로 마셨는데 이를 작설(雀舌)이란 이름을 붙여 작설차라고도 했다. 차나무가 없는 북쪽에서는 차가 귀했던 옛날 절간이나 풍류를 즐기는 가정에서는 즐겨 생강나무차를 작설차라 부르며 애용했다. 차나무는 남중국에서 온지라 추운 지방에선 재배가 불가능하니 값비싼 차를 못 구한 사람들이 작설차 대용으로 끓여 마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본디 우리 조상들이 차나무가 들어오기 전에 차 대신 달여 마시던 것이 바로 이 생강나무의 잎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녹차는 성질이 차고 몸속의 기름기를 녹여 나오게 하며, 카페인이나 탄닌이 많이 들어있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 않으며 대체로 몸이 찬 편인 우리나라 사람들

한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생강나무 잎이 우려낸 차는 은은한 향과 맛도 일품이고 죽은피를 없애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몸속에 쌓인 갖가지 독을 풀어주는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즐겨 마실 만합니다. 생강나무를 달인 물은 약간 매우면서도 신맛이 난다고 합니다. 성질은 따뜻하고 간과 신장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생강나무는 타박상이나 어혈, 멍들고 뺨을 때 등 신통한 효력이 있는 약 나무입니다. 생강나무의 잔가지나 껍질, 잎, 뿌리껍질을 날로 짓찧어 멍이 들었거나 상처가 난 부위에 두껍게 붙이고, 이와 함께 잔가지 50~70g을 물 한 되에 넣고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여서 마신 다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땀을 푹 내면 상처가 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 속에서 실족하여 허리나 발목을 삐었을 때 이 나무의 잔가지나 뿌리를 잘게 썰어 진하게 달여 마십니다. 한, 두 번 이렇게 하고 나면 육신육신 쏘시고 아픈 통증이 없어지고 어혈이 풀리며 상처도 빨리 낫는다고 합니다.

9. 나무와 대화하기

- 나무 끌어안기

나무와 하나가 되서 자연을 느껴보세요.

10. 숲, 나무의 중요성 및 마무리

숲의 혜택 중에서 돈을 받고 파는 임산물 이외의 것을 공익적 기능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숲의 공익적 기능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면 1995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그 가치가 무려 34조 6,11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 총생산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국민 한 사람마다 78만원에 상당하는 혜택을 드린 것입니다.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중에 가장 큰 고마움은 물을 저장하는 역할입니다. 숲이 물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지만 숲의 토양이 스펀지처럼 잘 발달해 있게 되면 이 부분에서 물을 흠뻑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숲을 즐기면서 정해진 곳으로만 다니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숲의 여기저기를 마구 짓밟아 땅이 굳어지게 되면 그만

큼 물을 담아 둘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밟지 않은 공간은 지렁이, 땅강아지와 같은 수많은 작은 생명체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남게 되고 이들이 자기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산과 숲이 더 많은 물을 담아 낼 수 있도록 우리 숲을 가꾸고 정리해 주어야 함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산과 숲이 있음으로 해서 물이 있고, 이 물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원천임을 가슴 깊이 새겨 두어야 합니다.